

현실 재현의 태도로서 '명랑(성)'의 의미

- 「달려라, 아비」(김애란, 2004), 「모자」(황정은, 2006)를 중심으로-

이은주*

- 차례 -

1. 왜 명랑(성)인가
2. 가족로망스
3. 재현적 거리: 살아 있는 인물, 감정, 관계
4. 인간적 시간과 이야기: 어른 혹은 미래
5. 맺음말: 불안을 봉쇄하는 자기보호 장치

[국문 초록]

현실을 재현하는 한 태도로서의 명랑(성)은, 현실을 일시적으로 은폐하거나 망각하게 한 기제로 논의되어 왔다. 근대문학장에서는 감성 정치의 기제로, 1950-60년대 '유모어소설', '명랑소설'에서는 지배담론에 순응한 문화장치의 한 코드로 맥락화되었다. 1970-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사회와 청년들에 대한 우울한 진단도 명랑과 만나고 있다.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생존주의로 압축되는 암울한 현실, 대안 없는 현실 속에서 명랑함은 어떻게 이 시대의 의미 충위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다. 분석대상은 「달려라, 아비」(김애란, 2004)와 「모자」(황정은, 2006)이다. 두 텍스트는 현실 재현 태도에서는 명랑함을 공통점으로 하지만 세 가지 다른 지점을 통해 시대적 의미에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자는 가족로망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후자는 가족로망스를 삭제하면서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드러낸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들의 감정, 대화, 관계로 만들어지는 재현된 장면에서의 몰입감을 비교했다. 전자가 유쾌하고 후자가 불쾌한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가 재현적 거리에 있음을 논의했다. 세 번째는 시간과 이야기의 상관성을 비교했다. 전자는 주체적 인간과 인간적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후자는 그것이 삭제된 우리의 현실을 심각하지 않은 태도로 보여주면서, 그 심각성을 더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두 작품은 사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명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명랑은 불안을 봉쇄하는 자기 보호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현실, 재현, 명랑성, 가족로망스, 재현적 거리, 일차원적 인간, 인간적 시간

1. 왜 명랑(성)인가

학술 용어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 '명랑(성)'이라는 어휘가 눈에 띄게 등장한 것은 근대문학 연구영역에서다. 여기서 식민지시기를 범위로 명랑성을 언급할 때 그 낯설음은 배가된다. 중일 전쟁기 신세대 논쟁을 재해석한 김철의 「우울한 형/명랑한 동생」¹⁾은, 그간 근대적 시공간에서의 정신구조 분석에서 언급되어²⁾ 온 명랑, 쾌활, 우울, 퇴폐, 무력감 등의 분위기를 당대의 정신적 지표로 맥락화하면서 명랑(성)의 시대적 의미가 당대인의 내면 풍경의 일면이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적 조건에서 피식민자의 운명은 분열적인 상태로 그 존재 조건을 특징지을 수밖에 없다. 김철은 그 분열의 양상을 '우울한 형과 명랑한 동생'의 구조로 논의하고 있다. 즉 형의 우울과 무력감이 내선 일체 정책에 따른 각종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 동원 체제에서 질주하는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없는 피식민자들의 공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동생의 명랑은 전쟁 경험에서 분리된 식민지 조선인이 새 시대의 사실을 새로운 도덕과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과장과 비약 속에서 동원체제의 사회구조 재편성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 상태로 잃어낸 것이다. 근대문학의 장에서 우울과 명랑은 이분화되거나 대척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서 부정과 긍정의 동시적 공존으로 봐야 할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표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명랑이 수상하다고 문제제기하는 『불온한 경성은 명랑

1) 김철, 「우울한 형/명랑한 동생- 중일 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2) 김수림, 「제국과 유럽: 삶의 장소, 초극의 장소」, 『상허학보』 23, 상허학회, 2008; 김예림, 「전시기 오락정책과 '문화'로서의 우생학」,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5; 신형기, 「총력전과 멜로드라마」, 『민족이야기를 넘어서』, 삼인, 2003; 차승기, 「추상과 과잉」, 『상허학보』 21, 상허학회, 2007; 차승기, 「전시체제기 기술적 이성 비판」, 『상허학보』 23, 상허학회, 2008.

하라』³⁾에서 ‘명랑’은 근대적 감정으로 자리한다. 총독부의 감정 정치에서 이식되어 주입된 것으로 추적되는 명랑은, 1930년대 총독부의 명랑화 작업과 함께 조선을 근대에 맞게 재편하고 식민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수단으로써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조선인의 신체는 물론 두뇌까지 통제하려 했던 명랑화 작업의 방식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1930년대 대중잡지에서 처음 출현한 대중서사로서의 유머소설은 ‘명랑=건전’이라는 공식을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현실대응 방식이었음⁴⁾ 보여준다. 1940년대 신체제기가 요구한 명랑성의 내용은 일상성과 결합하여 건실함, 건전함을 내용으로 당대 행동지침으로 작용하는 통제의 기제가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⁵⁾ 1930-40년대 총동원체제가 요구했던 감정정치의 핵심어 ‘명랑’은 현실재현의 방식이자 태도로서 존재했다면, 1950-60년대 ‘유모어소설’, ‘명랑소설’이라는 장르로 모습을 바꾸어가는 텍스트에서는 지배담론에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서로 작용한, 순응적 문화장치의 한 코드로 맥락화되기도⁶⁾ 한다.

선행연구는 ‘명랑성’이 식민지 시기 감성정치의 기제로 만들어진 생활윤리이자 지배담론의 전략에 접속한 정서였다는 것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연구에서는 감정으로, 어떤 연구에서는 전략적 지배기제로, 또 어떤 연구에서는 태도로 보는 등 공통 핵심어의 사용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도

3)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2011.

4) 김지영, 「일제강점기 유모어소설의 현실인식과 시대적 의미」,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5) 박숙자, 「‘통쾌’에서 ‘명랑’까지: 식민지 문화와 감성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30, 한민족문화학회, 2009; 박진숙, 「박태원의 통속소설과 시대의 ‘명랑성’」,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6) 김지영, 「‘명랑성’의 시대적 변이와 문화정치학」, 『어문논집』 78, 민족어문학회, 2016.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담론, 소설, 비평문, 대중(통속)소설 등으로 범주화되면서, 명랑성은 식민지시기의 시대적 정신구조와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태도로 의미화되는가 하면, 전망 찾기에 실패한 해당 시기의 소설이 시대적 요구와 결합한 서사의 통속화 양상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미 이러한 구분에 의해 명랑성을 핵심어로 하는 논의들의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한 연구도⁷⁾ 있다. 1930년대 이후 강조되거나 혹은 강요된 명랑은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거나 자본주의적 감정관리와 맞물리는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에서는 이 둘과 달리 명랑을 태도로 규정한 이가 김기림이었음을 역설하면서, 이는 막스 베버가 감정의 근대화론에서 주장했던 '태도(attitude)'로서 '부정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명랑(성)이 사회구조의 변동논리에 상응하는 태도라고 볼 때, 불확실한 미래와 가혹한 경쟁에 노출된 근래의 환경에서 생산되는 소설들의 명랑성 또한 '명랑성 연구사'에 포함될 단서를 마련한다.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에서 1930년대의 명랑성이 20세기의 '명랑', 21세기의 '행복'과 연동되는 기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듯이, 근대문학장에서 제기된 문제의식들로부터 최근의 문제를 아우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소영현, 김예림 또한 한국적 근대라는 큰 틀 안에서 '명랑성'을 새롭게 조망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⁸⁾ 있다.

본 연구는, 식민지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명랑성 연구가 1960년대 명랑소설의 연구로까지 이어져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재구

7) 소래섭, 앞의 책, 250-273면.

8) 김예림, 「전시기 오락정책과 '문화'로서의 우생학」,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5; 소영현, 「연대 없는 공동체와 '개인적인 것'의 행방」,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2011; 소영현,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성할 수 있다는 점, 1970-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사회와 청년들에 대한 우울한 진단이 명랑과 만나고 있는 지점에서 1930-40년대의 신세대 내면표정을 읽어내는 방식을 떠올리게 된다는 점을 연구의 시작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생존주의로 압축되는 근래의 암울한 현실, 대안 없는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텍스트의 명랑함은 어떻게 이 시대의 의미 층위를 만들 수 있는지를, 누적된 연구방법과 개념에 기대어 보여줄 것이다.

김홍중은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는 감정과 서바이벌을 향한 과열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기 존재의 가능성들을 전략적으로 계발하려는 집요한 계산으로 특징지어진다⁹⁾고 보았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청년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박민규, 김애란, 김사과, 황정은, 박솔피 등의 소설들)에 대한 해석이 ‘명랑(성)’을 호출하면서¹⁰⁾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명랑성의 이면을 생각하게 할 때, 그 사유의 기원은 1930년대를 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이와 분열의 상태로 견딜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은폐하거나 망각하게 한 기제로 명랑을 읽어낸 근대문학장에 대한 연구로부터 그 사유의 방법을 계승하며, ‘명랑(성)’을 현실재현의 태도로 본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전망 없는 이 현실상황을 재현하는 데 명랑성을 특정 태도로 취하고 있는 대표작가

9)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학』 49(1), 한국사회학회, 2015.

10) 권유리아, 「김애란 소설에 나타난 친밀감의 착시와 연극적 가족진리」, 『동북아 문화연구』 4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김미정, 「‘김애란식 긍정성’의 이면」, 『자음과모음』 13, 자음과모음, 2011; 박진영, 「명랑한 상상, 즐거운 생성」, 『Journal of Korean Culture』 7,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5; 소영현, 앞의 글, 2011; 2012; 장성규,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의 변화 양상연구」, 『인간연구』 36,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8.

의¹¹⁾ 작품 「달려라, 아비」(김애란, 2004)와 「모자」(황정은, 2006)를 중심으로, 유사한 재현 태도로 세계를 어떻게 다르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다름은 소설이 현실과 관계 맺는 방식의 다름이자 우리시대 인간과 삶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지점일 것이다. 그 다름을 관통하는 명랑은 식민지시기 지배담론이었던 명랑과 다를 것이며, 현실도피적이었던 1950년대의 태도, 순응적 문화장치였던 1960년대, 1990년대 이후 인간이 견딜 수밖에 없는 삶의 극한에서 부끄러움과 부러움 없는 태도로서의 상상력¹²⁾과도 다른 명랑일 것이다.

2. 가족 로망스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에서 아버지는 표면적으로 부재한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임신에 대한 두려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등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화자 나는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처지를 “연민

11) 근래 가장 문제작이자 비범한 예술성을 구현한 작품. 한국소설이 도달한 가장 주목할만한 성취로 황정은의 소설을 언급하는 데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연대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생존법을 보여주는 작가로 배치(소영현)되기도 하고, 현실 논리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존법만이 삶의 원칙이 되어버린 이 세계를 그만의 방식(한기욱)으로 다르게 재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성취로 거론하기도 한다. (이은주, 「서발턴의 타자성, 새로운 윤리적 감각」,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8집 1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37면.). 필자는 황정은의 소설이 내용과 형식이 서로를 견인하면서 소설장르의 완결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에 주목해왔다. (이은주, 「환상소설의 두 경향」, 『비평문학』 73, 한국비평문학회, 2019), 213면.). 현실(체제)과 그 속의 인간을 재현하는 데서 드러나는 그의 비범한 통찰력은 이야기와 시적 직관력이 결합된 형태로, 특정 작품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선택한 명랑한 태도는 어떠한 의미 충위를 만들고 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애란의 소설에서 명랑성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본 논문 각주 10)에서 정리했다.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시대성을 담아내는 작가의 대표성과 작품의 소재, 발표시기, 재현 태도의 유사성에 근거를 두었다.

12) 소영현, 앞의 글, 2011, 146-153면.

하지 않는 법을 가장 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며, “어머니는 내게 미안해하지도, 나를 가여워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고마웠다”고 말한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구원도 이해도 아닌 당당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화자에 기대어, 많은 연구들은 이 소설을 두고 “새로운 모계 가족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준다”거나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딸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시한다¹³⁾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달려라, 아비」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아버지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아버지가 부재한다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다는 것과 맥락이 닿지 않는 사건들도 모두, 없는 아버지와 엮이면서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어머니는 내가 성적인 질문을 할 때도 매번 멋지게 대답해 주었다. 아버지가 없는 나는 궁금한 게 많았다. 한번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아저씨를 보고 “저 아저씨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 어머니는 나를 한번 흘겨 보더니 “다리로 하나?”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했다.¹⁴⁾(밑줄강조, 필자)

성적인 질문, 특히나 모르는 아저씨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질문은 ‘아버지가 없는’ 것과 상관이 없다.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저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해소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궁금증은 더더욱 아니다. 화자 나의 표현대로라면 “여기 없다는 것뿐”이지 아버지는 “항상 어딘가에 계셨”고, 금기

13) 박진영, 앞의 글: 서은경, 「‘가족모티프’의 측면에서 바라본 김애란 소설의 변모 과정」, 『돈암어문학』 33, 돈암어문학회, 2018; 장성규, 앞의 글: 정혜경, 「여성 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서사의 재구성」,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2008.

14) 김애란, 「달려라, 아비」, 『달려라, 아비』, 창비, 2005. 16면. (이하 텍스트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 표시함)

(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늘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십수년 내내 '나'의 상상 속에서 '분홍색 야광 반바지 차림'으로 계속 달리면서, 맥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화자 나와 어머니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존재감(매력)을 말해주는 가족이 가까이에 있다. 그 사람은 어머니와 죽을 때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되지만, 나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에 '우연히 들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사소한 트집잡기와 끊임없는 참견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그는 외할아버지이다. 그를 통해 화자 나는 어머니의 어릴 적 비행에서부터 드셨던 성정, 유순한 이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왕래 속에서 화자 나는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에게 첩의 뺨쓰를 빨게 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다는 가족사를 구성할 수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를 수시로, 대놓고 비난하는 덕분에 화자 내가 아버지를 환기하는 것 또한 자동반사적인 일이 된다. 반복적으로 환기된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간 것도, 다른 아내를 원한 것도, 사막에 송유관을 묻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저 "달리기를 하러 집을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비천해지지 않는다. 화자 내가 아버지 없음에서 가질 수 있는 소외감과 결핍감은, '있는 아버지(외할아버지, 미국 아들의)'가 '없는 아버지(화자 나의 아버지)'보다 나을 것도 없는 가족사 안에서 원망 없이 "계속 뛰고 있는" 아버지, 마침내 어머니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십수년 내내 원망 없이, 웃으면서 달리는 아버지를 상상할 수 있었던 화자 나는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을 재정립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키웠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 편지로 돌아온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시시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썸글라스를 씌워 더 잘 뛰게” 만드는 것으로 어머니와 나 그리고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족을 완성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화자의 아버지가 화자의 상상 속에서 구축되는 방식은, 전형성을 벗어나고는 있지만, 가족로망스¹⁵⁾가 작동하는 방식을 빗겨가지는 않는다. 실제적이고 비참한 아버지를 “웃으면서 달리는 아버지, 달리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로 상상하면서 어머니와 화자 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회귀하는 그 아버지를 기점으로 더 성장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달려라, 아비」의 명량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농담과 웃음, 그리고 거짓말은 모두 가족의 관계를 이어가고, 지탱하며 그들의 역사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면서 아버지를 구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모자로 변신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 모티프로 하고 있는 「모자」는 끊임없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없다. 가부장적 권위가 약화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아버지가 부재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두드러진¹⁶⁾ 특징이었다. 「모자」에서는 아버지가 모자로 변신하면서, 실질적으로 ‘벽에 박힌 못’ 하나의 자리만큼의 크기와 무게로 사물화된다.

모자로 변신하는 아버지는 자주 세 남매에게 “뺨히고”, “발로 차이고”, “구겨 넣는” 존재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모자로 변신했던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현재의 세 남매에게서 아버지의 변신은 사건조차 되지 않는다. 할머

15)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27면: 140-141면.

16) 장성규, 앞의 글, 11면.

나는 아들의 변신을 본 적이 있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과묵하게 나이를 먹고 있었다. 세 남매의 어머니는 남편의 변신에 대해 더 이야기할 사이도 없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 아버지의 변신은 세 남매에게 그저 “지독한 일”,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전혀 해롭지 않은 일”일 뿐이며, “모자인 채로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모자의 세계”가 있나보라고 추측되는 정도다.

친밀성과 호혜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가족의 관념은 오래전부터 재정립해야 할 가치체제로 논의되어 왔다. 말하자면 가족에 대한 정상성을 말하는 것이 근대 이후 유행하는 개념으로¹⁷⁾서의 가족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달려라, 아비」에서 화자 나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마침내 돌아가셨다는 편지로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하는, 가족로망스를 부정하지 않는 서사를 완성했다. 그러나 「모자」에서는 애써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지도, 가족체계를 해체하지도, 가족에서의 이탈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대신 느닷없이, 아주 가벼운 농담처럼 아버지를 사물로 변신하게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사물화하면서 가족이데올로기를 와해한다. 등장하는 첫째와 둘째, 셋째는 세 남매인지 세 자매인지도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몰개성적이며, 미약한 서사를 이어가는 세 남매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모자로 변하는 핵심 사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심각하지 않고, 모든 일은 심드렁하여, 아버지가 모자로 변하든 말든 이들의 삶은 평화로움이라는 외피를 쓰고 지속된다. 그리하여 「모자」에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구성한 ‘형제들의 가족 로망스’¹⁸⁾ 또한 찾아볼 수 없다.

17) 정민구,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가족 사유의 한 양상」, 『어문논총』 35,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7-9면.

18) 권명아, 앞의 책, 25면.

3. 재현적 거리: 살아 있는 인물, 감정, 관계

「달려라, 아비」와 「모자」는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그 자리가 위태로워진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비관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서사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오히려 세계의 맨얼굴을 보아버린 사람들¹⁹⁾이 선택한 것은 표면적으로 무겁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부정적이지 않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이 이 두 작품을 명랑성과 유머²⁰⁾를 키워드로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을 재현하는 태도로서의 명랑은 가족로망스를 유지하고 있는 「달려라, 아비」와 삭제하고 있는 「모자」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달려라, 아비」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가는 생활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등장인물 모두가 사라진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서사를 공유하고 있고, 현재에도 나누고 있으며,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 나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죽을 때까지 좋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연을 가장하면서 딸의 집에 들러 참견을 하고, 트집을 잡으면서 가족관계를 이어간다. 화자 내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 중 가장 고마운 것을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 법, 미안해하지도, 가여워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길러낸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외할아버지 역시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고 있는 딸을 연민하지도, 가여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혼자 아이를 낳은 딸을 빈정댔고” 자신에게 “대들고 악악댔던” 딸을 홍보며, 가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과거를 환기하는 역할로, 사라진 아버지가 현재까지 어머니와 화자 나에게 어

19) 김미정, 앞의 글, 712면.

20) 김애란의 작품을 명랑의 키워드로 논의하는 문헌은 무수히 많다. 본 논문에서 선행 연구, 참고문헌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들은 모두 해당된다. 황정은의 작품을 두고 명랑성을 논의한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과 같다. 서영채, 「명랑한 환상의 비애-황정은은」, 『미메시스의 힘』, 문학동네, 2012.

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증거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래도 내가 연애를 하면 작은 년이랑 하지, 큰 년이랑은 안한다.”는 말로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평생 오고간 감정의 요동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어머니가 사라진 남편에 대한 원망을 안고, 궁핍한 상황에서 살아가면서도 화자 나에게서 아버지를 금기시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도 거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사라진 남편을, 아버지를 가족이라는 명분 안에서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화자 나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농담과 유머를 할 수 있는 정신적 조건을 공유하게 된다. 아버지에 대한 적대적 감정 없이 형성된 일정 정도의 우호(友好)와 얼마간의 무관심이 아버지에게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으면서²¹⁾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달려라, 아비」에서의 농담은, 농담을 하는 어머니와 듣는 화자 나를 모두 명랑, 유쾌하게 만들고, 그 농담을 듣고 있는 우리(독자, 제 3자)까지 웃음으로 이끌고 있다. 어머니가 하는 농담에, 그 어머니의 농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화자의 명랑한 태도에, 사라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의 금지, 억제 또는 억압의 강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심리적 비용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농담에서 나오는 웃음은 그 심리적 비용을 덜거나 극복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²²⁾ 되었을 것이다. 가족사로 공유되는 어머니와 화자 나의 감정은, 농담을 통해 사라진 아버지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힘을 길러냈으며, 그 힘은 다시 명랑한 농담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모자」의 세계는 아버지가 모자로 변신하는 현실이 비관적이거나

21) Sigmund Freud, 『프로이트 8: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임인주 역, 열린책들, 1997, 191-193면.

22) Sigmund Freud, 위의 책, 195-197면.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그 심각하지 않음과 가벼움²³⁾이 유쾌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려라, 아비」와 구분된다. 「모자」의 명랑성은 그 특유의 심드렁하고 무뚝뚝함²⁴⁾을 넘어 불쾌함에 도달하게 한다. 아버지가 자주, 아무 곳에서나 모자로 변하는 것이 남의 눈에 띄고 소문이 번지는 바람에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린 가족은, 여름이 오기 전 또 이사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

이웃에 살고 있어요, 라고 그녀가 인사했다. 첫째는 집 안쪽을 가리켰다.

들어오세요.

아니예요.

이웃 사람은 뭔가를 곰곰 생각해보는 듯하더니 등을 펴고 다시 한번 말했다.

아니예요.

그녀는 그 부근의 집들에 담이 없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싫어도 남의 집 마당을 보게 되는 일이 많은데, 일전엔 자기 아이가 이 앞을 지나다가 이 집 마당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이었다.

우연히 모자를 봤다고 하네요…….댁의 아버님이 마당에서 모자가 되어 있는 것을 그애가 본 모양이에요. 우리 부부가 그 문체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23) 서영채는 이를 “명랑성과 비애가 결합된 마조히즘적인 명랑성”이라고 부른다. 부조리한 세계 상태에 대해 체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버리려고 함으로써 마조히즘적인 명랑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서영채, 앞의 책, 251면.) 그러나 본 논문은 이 기괴한 명랑을 ‘부조리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영채와 입장을 달리한다.

24) 서영채, 앞의 책, 264면.

그냥 모자가 됐을 뿐인데요.

하지만 애들이 보잖아요.

전혀 해롭지 않아요.

애가 자꾸 물어봐서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웃 사람은 정말 난처한 이야기라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말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모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 부부는 생각하고 있어요.

.....

아무튼 유감이에요.²⁵⁾

이 장면은, 이웃 간의 거리를 없앤다는 취지로 담장 없애기 사업까지 벌이면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듯한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진짜 삶을 압축해 놓고 있다. 담장을 없앴지만 이웃의 집으로 쉽게 들어가지 않으며 들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 현실에서 이웃은, 모자로 변하는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늘어놓는다. ‘애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운운하며 윤리적 측면을 자극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예측가능하고 표준화된 관용어구 ‘유감이에요’를 통해 형식만 남은 예의를 차린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우리 부부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이웃이지만 어떠한 사건과 이야기들에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을 긋는 것을 잊지 않는다.

서영채는, “추한 것은 불쾌하지만 추한 것에 대한 미메시스는 유쾌

25) 황정은, 「모자」, 『일곱시 삼십이분 코끼리열차』, 문학동네, 2008, 41-42면. (이하 텍스트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 표시함)

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을 때, 대상의 추함과 미메시스의 유쾌함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적 긴장감²⁶⁾을 두고 황정은 식 명랑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명랑(katharsis)이 성립하려면, 미메시스의 대상(현실)과 미메시스(재현) 사이의 ‘재현적 거리(poiésis)’²⁷⁾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순 발랄하게 재현되고 있는 이 장면이 명랑을 넘어 불쾌함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이 재현적 거리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달려라, 아비」에서 화자 나는 어머니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성(性)적인 질문을 하고 어머니는 농담으로 받아 넘긴다. 이 장면이 유쾌하게 수용되는 것은 현실과 재현 사이의 거리를 독자가 암묵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거리는, 「달려라, 아비」의 이야기에 살아 있는 인물, 감정이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그 행위의 필연성과 개연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듦으로써 확보된다. 「모자」는 의도적으로 인물의 개성, 감정, 사건, 관계의 특수성을 삭제하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규칙,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 부정적 감정을 친절함과 예의로 포장한 태도”²⁸⁾로 아버지가 모자로 변하는 핵심사건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물들을 삽화 식으로 끼워 넣는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구성되지 않고, 나열된 장면으로 기억된다. 그것이, 서사화된 세계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추함(위선적인 평화로움)이 재현적 거리 없이 추한 상태 그대로 제시됨으로써, 「모자」의 심각하지 않음, 심드렁함, 기계적 대화, 실

26) 서영채, 앞의 책, 264면.

27) Poul Ricœur, 『시간과 이야기1』, 김한식, 이경래 역, 문학과지성사, 1999, 84-104면; 김한식, 「이야기의 논리와 재현의 패러다임」, 『프랑스어문교육』 34,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0, 333면.

28) 이은주, 「환상소설의 두 경향」, 『비평문학』 73, 한국비평문학회, 2019, 220면.

없는 농담 같은 분위기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 고발 장면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인간적 시간과 이야기: 어른 혹은 미래

소설에서 이야기를 이끄는 것은 시간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물의 행동이 재현되면서 이야기는 입체감을 얻게 되는데, 그 행동을 의미 있는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 시간이다. 「달려라, 아비」는 그 시간을 화자 나와 어머니의 것으로 만들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한다. 화자 나는 태어나던 시점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항상 어딘가에 계셨지만 그곳이 여기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늦게 오거나 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나는 펄떡이는 심장을 맞댄 채 꼭 껴안고 있었다.

- (「달려라, 아비」, 9면)

부재하는 아버지가 ‘항상 어딘가에 계셨다’는 것, 다만 ‘기억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화자 나의 ‘지금 여기’는 아니라는 시간 인식이다. 어머니와 내가 ‘펄떡이는 심장을 맞댄’ 지금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현재로 존재하게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²⁹⁾ 지금, 여기가 추상적인 어떤 순간이 아니라 노동과 삶의 시간으로 해석되는 것도 기억, 기다림과

29) Poul Ricœur, 앞의 책, 145면; Frank Kemode, 『종말 의식과 인간적 시간』, 조초희 역, 문학과학사, 1993, 58면.

결합하여 시간화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이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달려라, 아비」의 이야기에서 화자 내가 마음을 쓰는 것에 시간이 어떻게 상응³⁰⁾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질서를 잡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족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질서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있었고, 화자 내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사라졌으며,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사이가 나빠진 과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라진 아버지를 기다리는 나와 어머니의 현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아버지가 돌아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 기억하는 과거와 기대하는 미래, 그리고 이 둘을 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체험을 이야기로 만들고 있는 「달려라, 아비」는 그래서 잘 짜여진 한 편의 이야기가 된다.

이 이야기의 시간 속에서는, 많은 것을 알지만 어린 아이였던 화자 나와 피임약 먹는 법도 몰랐던 순진했던 어머니가 함께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 그 어른됨을 먼저 보여준 것은 외할아버지였다.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우는 딸에 대한 연민과 걱정을 사소한 트집과 참견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 했던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래도 내가 연애를 하면 작은 년이랑 하지, 큰 년이랑은 안한다.”는 말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인다. 어머니 역시 죽어서 편지로 돌아온 남편에 대해 원망도, 무엇도 없는 낮은 목소리로 “잘 썩고 있을까?”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자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은 가족로망스를 회복하는 명랑한 화법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단순한 긍정의 포즈, 낙관적 세계의 전망으로 읽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세계를 모르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유머와 명랑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³¹⁾을 남기는 것이다.

30) Poul Ricœur, 앞의 책, 144-145면.

31) 김미정, 앞의 글, 712면.

아버지가 비록 세상에서 가장 시시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은 같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상상했던 십수년 내내, 쉬지 않고 달리는 동안 늘 눈이 아프고 부셨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밤 아버지의 얼굴에 섀글라스를 씌워드리기로 결심했다.....(중략).....그것은 아버지에게 썩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젠, 아마 더 잘 뛰실 수 있을 것이다.

- («달려라, 아비», 28-29면)

「달려라, 아비」가 이야기의 시간성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장과 미래 전망을 상상하게 한다면, 「모자」의 등장인물들은 자라지도 않고, 감정도 없으며, 기계적으로 현실에 적응하는 듯한 괴물성을 드러낸다. 모두가 괴물 같은 세계에서 감정을 드러내며 현실에 기계적으로 적응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세계에 부딪혔을 때 모자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아버지가 모자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된 이웃과 첫 짜의 대화 장면으로 상징되듯이 자유와 개성을 상실한 등장인물들의 기계적 대화는 이웃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남매 간, 남매와 아버지, 아버지와 할머니 등 등장인물들 모두는 자신의 특수한 이야기에 무관심한 듯 자신을 삭제하고, 생각과 행동에 기술적 의무, 규칙, 구조만 따른다. 「모자」의 세계에서는 아버지 변신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이 어머니의 기억인지, 할머니의 기억인지 중요하지 않으며, ‘더 오래 전 기억’으로 전해지는 시간 순서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등장인물들에게는 자신의 희망, 두려움, 가치를 형성하고³²⁾, 마음

32) 마르쿠제는 선진산업사회의 획일성을 분석하는 『일차원적 인간』에서, 새로운 방식

쓰는 것에 상응하는 인간의 시간이 없다. “시간은 서술적 양태로 역임으로써 인간의 시간이 되며, 이야기는 시간적 실존의 조건이 될 때 그 의미가 충만”³³⁾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자」에서는 자라지 않는 등장인물들, 대상을 특정할 필요 없는 무의미한 대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자로 변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우리 아버지로, 지금도 자주 모자가 된다’로 아버지의 삶을 요약하는 가족들을 보여주며, 다차원적인 인간 주체와 인간의 시간이 삭제된 섬뜩한 세계를, 짐짓 심각하지 않은 척하는 태도로 재현하고 있다.

5. 맺음말: 불안을 봉쇄하는 자기보호 장치

현실을 재현하는 한 태도로서의 명랑(성)은, 차이와 분열의 상태로 견딜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은폐하거나 망각하게 하는 기제로 논의되어 왔다. 근대문학장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명랑성은 이러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1930년대는 감성정치 기제로, 1950-60년대는 지배담론에 순응한 문화장치의 한 코드로 맥락화되었다. 1970-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사회와 청년들에 대한 우울한 진단도 명랑과 만나고 있다.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달려라, 아비」(김애란, 2004)와 「모자」(황정은, 2006)에 초

의 지배와 사회통제가 확산되면서 그에 순응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분석한다. 일차원적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유, 개성을 잃었거나, 잃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스스로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통제되고, 이중적이며, 타율적이고, 지배에 저항하거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그들이 대중의 행동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존재하는 힘을 모방하고 이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본문의 문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일차원적 인간이 포기한 내용이 된다.

H. Marcuse, 『일차원적 인간』, 박병진 역, 한마음사, 2009, 23면.

33) Poul Ricœur, 앞의 책, 125면, 145면.

점을 맞추었다. 생존주의로 압축되는 암울한 현실, 대안 없는 현실 속에서 두 텍스트는 명랑함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시대의 의미 층위를 다르게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두 텍스트를 받치고 있는 명랑한 태도가 가족로망을 유지하는가, 삭제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다. 전자에서 농담, 용인되는 거짓말 등으로 만들어가는 명랑함은 아버지를 구축하는 일, 가족사를 공유하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의문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면서, 「달려라, 아비」가 가족로망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족에 대한 정상성 회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의미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달리는 아버지를 상상하게 하는 명랑함은 현실의 불안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모자」에서는 아버지, 형제들, 조부모가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심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가족의 의미를 되물어야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움이라는 외피를 단단히 쓰고 있어 명랑을 가장한 「모자」의 세계는 깨질 이유도, 필요도 없어 보인다. 「모자」의 폐쇄적인 명랑은 어떠한 가능성으로도 전환되기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로 「달려라, 아비」의 농담과 웃음이 유쾌함으로 이어진다면, 「모자」의 능청스러움과 심드렁함은 불쾌한 감정으로 남는다는 차이에 주목했다. 전자가 살아있는 인물들의 개성과 감정, 맥락 있는 대화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와 이야기 속에서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명랑에는 웃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통로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모자」에서 재현되는 실없는 농담 같은 이상한 세계는, 잘 짜여진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추한 상태 그대로를 장면, 장면 던져놓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펼쳐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함과 그것의 미메시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적 긴장감이 삭제되고, 추

한 것이 추한 상태 그대로 감지된다. 그 추함이 가볍게 장난처럼 펼쳐 지므로, 우리는 외면했던 현실을 당황스럽고 불쾌한 상태로 직면하게 된다.

고도경쟁, 평생경쟁, 무한경쟁 사회로 불리는 이 시대는 경쟁과 그에 따르는 책임, 불안마저도 개인화할 수밖에 없는 자기통치(self governance), 자기착취의 시대로도 명명³⁴⁾된다. 연대가 불가능한 이 사회에서는 저항과 분노도 연대에 의해 표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희망, 기대, 정의감이 작동하기 어렵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의 불안과 공포는 일상화되며, 개인이 경험하는 공포감이 사회적 차원으로 공유되거나 분담되지 않을 때, 개인은 타인(이웃)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수할 위험, 위협적인 현실에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달려라, 아비」와 「모자」가 보여주는 명랑은 그 거리두기의 장치로 자기보호, 보호색의 기능을 한다. 2000년대 명랑이 방어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과거의 명랑(성)이 감성정치의 기제나 지배담론에 순응하게 하는 장치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면, 「달려라, 아비」와 「모자」를 관통하는 명랑은 사적이고, 배타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두 텍스트의 차이는 우리시대 인간과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태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다. 「달려라, 아비」가 주체적 인간과 인간적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2000년대 이후 생존주의로 일컬어지는 이 현실상황을 타계해 나갈 한 방향을 생각해 보게 한다고 합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달려라, 아비」가 명랑으로 가리고 있는 현실이 바로 「모자」의 세계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자」는

34) 박형신, 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103-137면; 221-263면;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2, 109-114면. 이 문단에서 언급한 시대(2000년대)에 대한 진단은 박형신, 정수남, 김태환의 문헌을 참고했다.

「달려라, 아비」가 보여주는 모든 가능성을 삭제하면서 개인적 포부, 희망, 두려움, 가치 등을 포기하게 만든 사회와 그 사회를 닮은 인간 그 자체가 되고 있다.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모자」의 세계가 가볍고 심드렁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그 세계에서는 어떠한 동의와 화해도 필요하지 않고, 균열도 발생³⁵⁾할 수 없을 것 같다. 신체와 정신이 모두 사물화된 세계의 심각성은 그래서 더 섬뜩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35) 모리스 블랑쇼는 산업사회의 가장 발전한 단계에서 자본주의 체제 지배의 종언을 요구하는 혁명적 태도로, '절대적 거부'라는 형태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가치가 없거나 중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성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지혜의 현상이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응하지 않을 동의와 화해의 구실이 있다.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공모를 허용하지 않을 솔직성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부분은, 모리스 블랑쇼가 말한 맥락을 역설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H. Marcuse, 앞의 책, 309면.

[ABSTRACT]

Meaning of “Gaiety” as an Attitude
to Representation the Reality

- Focused on the ‘Run, Dad’ (Kim Ae-ran, 2004)
and ‘The Hat’ (Hwang Jung-eun, 2006)-

Lee, Eun-ju(Catholic Kwandong university)

Gaiety, an attitude to representation the reality, has been discussed as a mechanism that temporarily enables the covering up or oblivion of the reality in the state of difference and division, which one has no choice but to bear. In Korea, it was contextualized as a mechanism of politics that appealed to emotions in modern literature, and as a code of a literary device in adapting to the dominant discourse by the “humor novel” and “gaiety novel” in the 1950s through 1960s. Gaiety is also related to the depressed diagnosis of the Korean society and youths in the 1970s through 1990s.

This study intends to look at how gaiety creates layers of meanings in this period of grim reality with no alternatives given, which can be summarized in one word—survivalism. This study analyzed two novels, ‘Run, Dad’ (Kim Ae-ran, 2004) and ‘The Hat’ (Hwang Jeong-eun, 2006). The two texts have in common that they take gaiety as an attitude to representation the reality, but they are

different in three place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the former maintains family romance, while the latter deletes family romance in dealing with the reality. Second, this study compared a sense of being immersed between the two texts in scenes representation using the characters' emotions, conversations, and relationships; and discussed how *poiésis* is the reason why the former maintains a cheerful state while the latter an unpleasant state. Third, this study compared the relevance of time to the story between the two texts. It was found that independent humans and human time are maintained in the former, while the latter unseriously shows our reality in which independent humans and human time are deleted, making the seriousness more powerful.

Ultimately it can be seen that the two texts maintain a gaiety attitude through a private and exclusive way. At this time gaiety can be understood as a self-protection device that blocks anxiety.

Key words: Reality, representation, mimesis, gaiety, family romance, *poiésis*, one-dimensional man, human time(*kairos*)

[참고문헌]

□ 기본자료

김애란, 『달려라, 아비』, 창비, 2005.

황정은, 『일곱시 삼십이분 코끼리열차』, 문학동네, 2008.

□ 단행본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25면, 140-141면.

박형신, 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포 감정의 거시사회학』,
한길사, 2015, 25-137면, 221-263면.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2011, 250-273면.

서영채, 『미메시스의 힘』, 문학동네, 2012, 249-265면.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2, 11-29면, 81-114면.

Freud, Sigmund, 『프로이트 8: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임인주 역, 열린책들, 1997,
186-206면.

Kemode, Frank, 『종말 의식과 인간적 시간』, 조초희 역, 문학과지성사, 1993,
52-58면.

Marcuse, Herbert, 『일차원적 인간』, 박병진 역, 한마음사, 2009, 14-26면.

Reinhard, Kenneth 외, 『이웃』, 정혁현 역, 도서출판b, 2010, 215-301면.

Ricœur, Poul, 『시간과 이야기1』, 김한식, 이경래 역, 문학과지성사, 1999, 84-104
면, 125면, 145면.

□ 논문

권유리아, 「김애란 소설에 나타난 친밀감의 착시와 연극적 가족진리」, 『동북아
문화연구』 4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151-168면.

김경미, 「D. H. 로렌스의 ‘어른 같은 아이’와 ‘아이 같은 어른’: 『연애하는 여인들』
의 위니프레드와 리르케」, 『영어영문학 연구』 59(1), 2017, 19-32면.

김미정, 「김애란식 긍정성’의 이면」, 『자음과모음』 13, 자음과모음, 2011, 709-713면.

김수림, 「제국과 유럽: 삶의 장소, 초극의 장소」, 『상허학보』 23, 상허학회, 2008,

139-183면.

김예림, 「전시기 오락정책과 ‘문화’로서의 우생학」,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5, 325-350면.

김지영, 「일제강점기 유모어소설의 현실인식과 시대적 의미」,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465-508면.

_____, 「‘명랑성’의 시대적 변이와 문화정치학」, 『어문논집』 78, 민족어문학회, 2016, 217-262면.

김 철, 「우울한 형/명랑한 동생- 중일 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153-191면.

김한식, 「이야기의 논리와 재현의 패러다임」, 『프랑스어문교육』 34,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0, 331-359면.

김홍준,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한국사회학회, 2015, 179-212면.

박숙자, 「‘통쾌’에서 ‘명랑’까지: 식민지 문화와 감성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30, 한민족문화학회, 2009, 213-238면.

박진숙, 「박태원의 통속소설과 시대의 ‘명랑성」,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268-281면.

박진영, 「명랑한 상상, 즐거운 생성」, 『한국어문학』,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5, 111-120면.

서은경, 「‘가족모티프’의 측면에서 바라본 김애란 소설의 변모 과정」, 『돈암어문학』 33, 돈암어문학회, 2018, 65-98면.

소영현,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387-416면.

_____, 「연대 없는 공동체와 개인적인 것’의 행방」,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2011, 146-153면.

신형기, 「총력전과 멜로드라마」, 『민족이야기를 넘어서』, 삼인, 2003, 129-152면.

이은주, 「환상소설의 두 경향」, 『비평문학』 73, 한국비평문학회, 2019, 207-230면.

유기환, 「미메시스에 대한 네 가지 시각」, 『세계문학비교연구』 33, 세계문학비교학회, 2010, 375-404면.

장성규,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의 변화 양상 연구」, 『인간연구』 36,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8, 7-31면.

정민구,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가족 사유의 한 양상」, 『어문논총』 35,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5-37면.

차승기, 「추상과 과잉」, 『상허학보』 21, 상허학회, 2007, 255-293면.

_____, 「전시체제기 기술적 이성 비판」, 『상허학보』 23, 상허학회, 2008, 13-44면.

접수일: 2020.11.11 총평일: 2020.12.17 게재확정일: 2020.12.19
